

국어의 주변

장재성

문장연구소 소장

1. ‘국어’의 주변

— 방송 말 · 신문 글의 어질증 —

‘말’(言)을 길게 발음하는 아나운서는 네 방송사 통틀어 서너 명이다. 지하철 ‘교대역’은 ‘交代驛’으로 둔갑하고, 공항 방송의 아가씨 목소리는 자다 깬 선타입이 곁들였다.

석 달에 한 번씩 책 사러 갔다 오는 부산~후쿠오카의 30분 비행 시간은 터지려는 귀청을 간신히 추스리어 딴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다. 시장통 바닥의 말씨 못잖은 무성의·무겸허... ‘언어의 미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신문은 어떤가? 문장 교열의 생무지인 현실에서 악문이 활개를 친다. NIE(신문의 교재화)랍시고 사설·칼럼을 복사하여 교재화하는 성싶으나, 주제의 불선명, 구성의 무변화, 서두·종결의 무기교, 표현의 무매력 따위의 딱딱한 경문(硬文)들이, 도시 모범문이 될 수 있을지 답답한 현실이다.

※ 이 글의 내용은 국립국어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 ‘읽힐 수 없는 글’이 모범문이랍시고 배운 학생들의 눈술은 자연히 육군사관학교 졸업논문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100자가 넘는 장문을 본받은 학생들은 악문을 일삼고, 고교에서 문장 수정 수업이 없으며 무표준·무수정·무평가의 황무지가 돼 간다.

데스크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대충 보고 인쇄로 넘기고, 깔끔히 다듬어 국민들에게 모범문으로 군림해야 할 신문 문장들이 날림공사투성이인 채 안방으로 침투한다.

‘문장’을 필생의 업으로 삼아 기량을 닦고, ‘좋은 글’, ‘맵시로운 글’로 사회에 봉사해야 할 논설실이 정치의 대기실로 둔갑하는 현실——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학총장이 되는 현실이기에 그런 연구의 저서가 태무한 건 당연하리라.

듣기가 역겨워 꺼 버리는 공영방송의 TV,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한국어의 말씨가 저렇게 어지럽고 양갈지고 새될 수가 있을까!

한국어는 장단가락이라는데 그 특징은 차차 여리어지고, 월가락(intonation)에서의 돌움가락(prominence)도 경우 나름이지, 부드럽고 고즈넉한 말씨가 차차 사라져 간다.

“말은 겨레넋의 사당(祠堂)”이라던가. 옛사람의 고운 숨결 오가던 유습은 깨어지고, 비정의 금속성으로 목소리마저 바뀌어 간다. 어느 방송사엔 발음연구기관까지 두었다는데, 5·6년 기다려도 ‘밭꼬’[‘밭고’의 발음은 ‘밥꼬’가 맞음]가 고쳐지지 않고, ‘의’는 아예 ‘에’로 표준화 돼 간다.

아나운서의 발음 교정은 방송위원회 몫인가, 보도국장 몫인가? 신문기자들의 문장 지도는 어느 부서의 책임인가?

아나운서의 말씨도, 신문기자의 문장도 엄연한 상품이다. 좋은 상품이어야 잘 팔린다. 말 한 마디 글 한 허리에 정성을 담으라. ‘말’로써 먹고 사는 이들이 말의 아름다움에 눈감아버리고, ‘글’로써 생업을 삼는 이들이 ‘읽힐 전략’을 짜지 않는 직무유기!

「고운말 경연 대회」는 없을까, 「맵시로운 기사문(記事文) 상(賞)」은 왜 없을까.

2. 어설픈 「국어 교과서」 다시 짚으면

— ‘국어 교육’의 두 굽 —

‘국어 교육’은 두 굽(방향)이다. ‘읽어내기’(독해)와 ‘지어내기’(표현)다. 읽어내기는 정보의 수용과 활용이요, 지어내기는 창조와 전파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모두 맞갖지 않다. 독해의 과녁인 <단락의 잇매임>엔 정설(定設)이 아직 없고, 표현의 고갱이인 틀[型]의 지식엔 <기승전결>이 고작이다.

‘그러나’를 ‘부정대립’(부정역접)과 ‘강조대립’(강조역접)으로 갈라서 절(節)의 전개를 과학적으로 하계끔 한 책이 없고, 회랍 변론술형인 5단계(도입→진술→증명→반론→결어)나, 중국 산문형인 5단계(기→승→포→서→결)를 소개한 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알짜한 <대학 작문>들——자기 책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조작된 권위’에 서든, 상업주의의 실리에서는 「속 빈 강정」들이 널부러져 안쓰러울 뿐이다.

정서법을 들머리로 삼아, 본령을 그르치는 것, 한자숙어를 정성스레(?) 나열해 ‘검정 강아지로 돼지를 만들’고들 있는 것——문장론 알짜들과, 학생들의 글 바루는 것들로도 모자랄 지면인데 말이다. 선부른 의사 침통 혼드는 것도 정도 문제다.

몰몰아, 국어 교과서(초·중·고)도 대학의 『국어』도 문장론 부채를 웅변하고, 정보의 전달과 창조에 꺾발스레 써먹힐 본령에서 완전 벗어난 느낌이다.

한마디로, 기술독해론(technical reading)이나 기술표현론(technical writing)에 여리다는 얘기다. 문장 독해의 핵심인 요지 파악의 공식이나 실례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회에 나가면 그 뒷날부터 써먹을 짤막한 칼럼 하나, 그 요령을 보이지 못했다.

IMF로 집 나간 아버지를 불러들이는 광고문을 당장 써야 할 판인데도,

안방에 누워 소설이나 읽고 앉았으라는 교과서라면, 그것은 상아탑에서 백일몽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고교국어(상)』에는 「글의 내용과 구조」라는 단원이 있다. “요약하라”는 「학습 활동」이 있다. “요약해 보라”는 막연한 지시——교과서가 완전 부실공사임을 웅변한다. ‘요약’은 독해와 표현의 완충 지대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중학교에만 들어가면 요약문 씌우기(précis)에 뒹달질이다. 어느 요약을 뜻하는가?——abstract인가 digest인가 summary? extract? paraphrase? 아니면 résumé?

필자는 예닐곱 가지의 것을 셋으로 가닥잡았거니와 ‘용도’ ‘길이’ ‘교육적 겨냥점’에서 명확히 지시해야 할 게다.(※「축소형 요약」(digest·résumé가 대표), 「중점형 요약」(summary가 대표), 「창조형 요약」(paraphrase가 대표)이 그것인즉, 축소형은 사진과 비슷하고, 중점형은 요지형·주제형이 되겠고, 창조형은 감상문형·의견문형이 되겠다).

‘텍스트’——그것은 잘 갈다듬어진 옥돌이어야 할 게다. 「명확한 주제의 겨냥점이 제시된 교과서」이라야겠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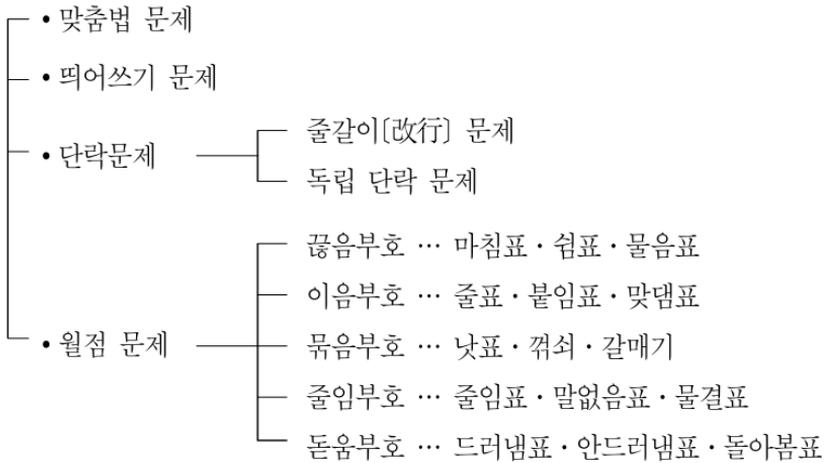
먼 먼 외딴섬 등대 아래서, 그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외고 있을 어린 톨스토이와 헤밍웨이가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3. 월점은 문장의 미용사다

— 표기론을 바로 세우자 —

월점(문장 부호)의 실태가 말이 아니다. 표현학(phraseology)의 부재를 드러낸다. 문장론의 가닥은 둘이다.——〈표현론〉과 〈표기론〉. “문자보다 중요한게 월점”이라는데, 이 땅에선 ‘개밥의 도토리’로 전락했다. 〈한글 맞춤법〉에서도 우선 바꾸어야 할 게 월점 항목이다. 분류의 혼미, 실용적 규정화의 미흡, 이름붙이기(naming)의 선부름 등을 머금었기 때문이다.

〈표기론〉의 가닥론 —



월점 문제는 필자 나름 분류한 것이어나와, '3대 부호'의 하나인 줄표의 쓰임에 단 두 항목만이라는 것은, 문장부호 항목이 '부록'이라는 천대와 함께 얼마나 홀대했는지 알 수 있다. 3대 문장부호(쉼표 · 마침표 · 줄표)에서도 유독 줄표의 쓰임새는 그 필자의 문장력의 저울대라 하거니와, 패트리지(E.Patridge)는 무려 18가지나 들고 있는데도 단 두 가지만 들었다는 건 너무했다.

다음의 표기에서 '표기론'의 운치를 읽는다.

㉠ 심심 산골에는 산울림 영감이 바위에 앉아 나같이 이나 잡고
 홀로 살더라

- 유치환 : 〈심산〉

㉡ 심심 산골에는
 산울림 영감이
 바위에 앉아
 나같이 이나 잡고
 홀로 살더라

줄칼이가 장르의 형태까지 바꿔놓았다. 줄글(산문)이 가락글(운문)로 바뀐 곳에 독립단락의 이론을 엮보겠거니와, 알짜말(key word)의 배치에선 놓칠 수 없는 보배를 줍는다.

산골 → 영감 → 바위 → 이

원 → 근

상 → 하

대 → 소

‘표현의 묘미’를 새기자는 거다.

다음은 교과서(『고교국어(상)』 206쪽)의 보기다.

“이제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라고 말하여 여운을 남기거나, “문화의 전통은 이러합니다. 전통의 문제가 이뿐일까요?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라고 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듣는 이가 더 생각하게 된다.

월은 몇일까? 마침표·물음표를 기준하면 일곱이요, 생각의 단위를 기준하면 하나이다. 장장 106음절의 한 센텐스! 연구진·집필진 도합 23명이 손질했다는 문장치곤 너무 허술하다. ‘정보의 효과적 전달’에 눈을 감아버린 점이 문제다.

1어1의(one word one meaning), 1문1상(one sentence one idea), 1단락1화제(one paragraph one topic), 1문장1주제(one passage one theme)가 정보문장의 원칙일게다. 맨 끝의 마침표 말고는 모두 쉼표로 바꾸어 보라. 그리고 닫은따옴표 바로 앞의 마침표는 무용지물이다. ‘쉬운 문장’ 1회용 문장으로 고칠 일이다.

마침표의 원칙을 제시하면 —

- ① 마침표는 가급적 완결되는 월끝에만 친다.
- ② ‘한 센텐스, 한 마침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중간의 마침표에는 마침표를 대신하는 쉼표로 한다.
- ④ 따옴표가 있을 때에는 닫은따옴표로써 마침표를 대신한다.
- ⑤ 월의 끝에 종속적인 내용의 괄호가 덧붙는 경우엔, 그 밖에 마침표를 친다.

월점은 문장의 미용사다. 활력과 맵시를 덧칠하는 미용사다. ‘쉬운 문장’ — 그것은 ‘읽기 쉬운 글’, ‘맵시로운 글’이기 때문이다.

㉠ 싫증 나는 문장보다 배 고프 문장을 쓰라고 몽테뉴는 말했다.

㉡ “싫증 나는 문장보다 배 고프 문장을 쓰라” — 몽테뉴의 말이다.

㉠ 보다 ㉡이 더 입체적이고 시각적이다. 빨리 물어온다. “기능적인 문장은 아름답다”고 한 바우하우스(Bauhaus)학교의 이념은 바로 이런 것인가.

〈참고〉

※ ‘부정대립’은 ‘부정역접’으로, ‘강조대립’은 ‘강조역접’으로 새길 일이다. ‘역접’(逆接)이란 일본의 용어다. 본토에서도 거부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필자는 문맥의 〈7대 이음새〉를 다음처럼 잡았다.

상술형(풀이이음) / 귀결형(맺음이음) / 병립형(나란히이음) / 대립형(맞선이음) / 전환형(꾸은이음) / 전개형(펼치이음) / 보충형(보탬이음)